

■ 세인트루이스의 한국선수 사랑

강정호·박병호 영입 불발
결국 오승환 품에 안았다

검증된 아시아 스타에 꾸준한 관심



강정호



박병호

오승환(34)을 선택한 세인트루이스는 그동안 한국선수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구단이다. 포스팅시스템(비공개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 강정호(29·피츠버그)와 박병호(30·미네소타)의 영입전쟁에 뛰어드는가 하면, 프리 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김현수(28·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인트루이스가 강정호, 박병호를 데려오기 위해 열을 올린 이유는 팀 사정 때문이었다. 강정호는 조니 페탈타(34)의 뒤를 이을 선수로 주목했다. 페탈타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걸출한 유격수지만 서른네 살로 나이가 많다. 세인트루이스는 젊은 유격수 찾기에 몰입했고, 한국의 강정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에 참여했다.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정호의 포스팅금액으로 500만달러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피츠버그에 단 2015달러 차이로 밀렸지만, 500만달러라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정도로 영입 의사가 높았다.

강정호를 데려오는 데 실패한 세인트루이스는 이듬해 시장에 나온 박병호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현지 언론은 “세인트루이스는 박병호가 필요하다. 2015년 내셔널리그 홈런 11위, 전체 30개 팀 중 25위로 홈런 하위권이었다. 현재 마이너리그 유망주 중에서도 거포가 없어 장타자가 필요하다. 2년간 스카우트들이 박병호를 지켜봤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마쳤다”며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연일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도 박병호 데려오기에 열을 올렸지만, 그마저 1285만달러를 써낸 미네소타에 빼앗겼다.

존 모젤리와 단장은 강정호, 박병호의 영입에 실패한 뒤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시아시장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선수들을 향한 관심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무대에서 실력을 입증 받은 오승환을 데려가는 데 성공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세인트루이스는 더 강한 불펜 원했다



오승환이 입단할 세인트루이스는 최고의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 등 강력한 불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투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단점이다. 마이크 매서니 감독이 배팅볼을 던지고 있다. AP뉴시스

왜 오승환을 선택했나?

구원투수 방어율 ML 전체 3위 자랑
특정선수 과부하·재활중인 월트 대비
오승환 영입으로 불펜지원 강화 예상

오승환(34)이 입단할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이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의 유일한 100승 팀으로 3년 연속 중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메이저리그의 트렌드인 ‘불펜 야구’에서도 앞서나가는 팀이다.

●메이저리그 트렌드는 ‘강한 불펜’

세인트루이스는 지난해 팀 방어율 1위(2.94)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실점을 한 팀이었다.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유일한 팀으로, 선발투수 방어율 1위(2.99)에 구원투수 방어율 3위(2.82)로 최고의 마운드를 자랑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 ‘강한 불펜’을 앞세운 팀들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캔자스시티는 지난해 켈빈 에레라~웨이드 데이비스~그렉 홀랜드로 이어지는 막강한 불펜왕국을 건설하며 1985년 이후 30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뒀다.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로 강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스포팅뉴스는 지난 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불펜진 순위를 선정했는데, 캔자스시티는 2위에 올랐다. 1위는 ‘쿠바산 미사일’ 아롤디스 차프만을 데려와 캔자스시티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뉴욕 양키스였다. 투자와 성적에 민감한 양키스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듯, 메이저리그도 불펜 보강에 중요한 비중을 두

고 있다. 이미 세인트루이스 불펜진도 충분히 강하지만, 오승환 영입은 수준급 자원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이미 강한 불펜, 자원은 많을수록 좋다!

스포팅뉴스가 선정한 불펜진 순위에서 세인트루이스는 보스턴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일단 현역 최고 마무리투수 중 한 명인 트레버 로젠탈(26)의 존재감이 강력하다. 2014년 45세이브를 올린 로젠탈은 지난해 48세이브(2승4패·방어율 2.10)로 세이브 2위에 올랐다. 1990년생으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시기다.

로젠탈 앞에는 좌완 케빈 시그리스트(27)가 셋업맨으로 버틴다. 지난해 성적은 7승1패·6세이브·28홀드에 방어율 2.17. 우완 세스 메이스트(28)도 4승2패·3세이브·20홀드·방어율 4.26으로 분전했다. 여기에 베테랑 조너선 브룩스틴(32)과 재활중인 조던 월든(29)도 필승조 후보다. 이미 충분히 강한 불펜진을 보유하고 있는 데 오승환이 왜 필요한 것일까.

세인트루이스 불펜은 지난해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특정 투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특히 시그리스트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 중 가장 많은 81경기에 등판해 74.20이닝을 던졌다. 빅리그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40이닝을 넘겼다. 메이네스 역시 76경기서 63.10이닝을 소화했다. 여기에 건강하다면 셋업맨이 가능한 월든의 몸 상태도 아직 몸음표에 가깝다.

팀 입장에서 자원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한국과 일본 무대를 통해 검증된 오승환도 로스터 내에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WS 챔피언 11번…ML 두번째 최다 우승팀

■세인트루이스는 어떤 팀?

최근 5년간 승률 1위·관중 ML 전체 2위
팬들 충성도 높아 구단 수입도 최상위권

김원주 전 전북도지사는 2012년 부영그룹과 손잡고 프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선포하면서 “전북의 전주, 군산시가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는 단 31만명의 인구로 연간 300만명의 관중을 유치하며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다”고 말해 취재진을 어리둥절하게 한 적이 있다. 메이저리그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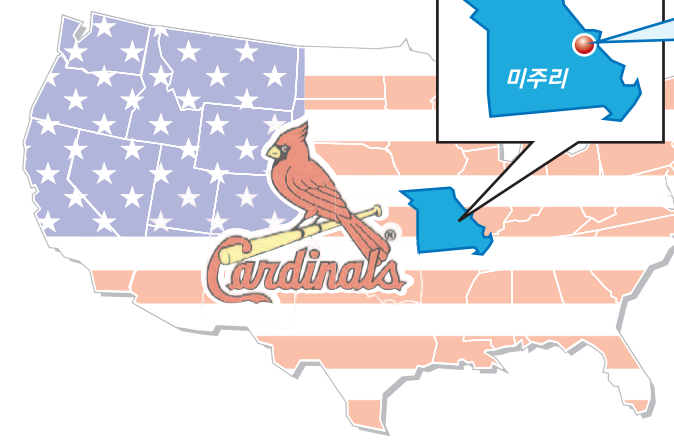
오승환의 입단 발표를 앞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메이저리그의 대표적 명문구단이자 인기구단이다. 세인트루이스시의 인구는 당시 기준 31만명이지만, 광역도시권 인구는 300만명 이상이다. ‘북미대륙의 십자로’라고 불리는 교통의 요지로 25개의 철도가 교차하고, 미

시시피강 수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미국 역사보다 더 오래된 도시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중서부의 교육문화 중심지로서의 자부심도 매우 강하다.

세인트루이스는 11차례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라 뉴욕 양키스(27회)에 이어 메이저리그 2번째 최다 우승팀이자, 내셔널리그 최다 우승팀이다. 1882년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연고지를 옮기지 않아 꾸준히 관중 동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TV 전국 방송이 시작되기 전 라디오 전국 방송의 중계 단골팀이었으며, 세인트루이스 팬들은 대거 인근 도시로 월경 응원을 가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1920년대 브랜치 리키 단장 주도로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꾼 팍시스템 구축을 선도한 팀이며, 이를 바탕으로 강팀의 위상을 지켜왔다. 세인트루이스의 팍은 스탠 뮤지얼이라는 팀을 상징하는 스타를 탄생시켰다. 1943년부터 1963년까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연속해서 올스타로 선발(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제외)된 뮤지얼은 1958년 세인트루이스 팀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디지 딘, 마크 맥과이어, 밥 김슨, 아지 스미스, 앨버트 푸홀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고 명감독 토리 라루사도 영구결번의 주인공이다. 2011년 이후 5년 동안 메이저리그 전체 최고승

률팀이며,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월드시리즈 2회 진출 및 1회 우승을 기록하며 라이벌 시카고 컵스는 물론 뉴욕 양키스를 압도하는 성적을 올리고 있다. 경기당 관중은 4만3467명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2위이며, 방송중계권 등의 구단수입에서도 충성도 높은 팬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매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소육장갈비

500g+500g=1,000g/39,000원

소불우삼겹

주방걱정 무

착한 메뉴

수제돼지갈비

600g+600g=1,200g/46,000원

수제양념소갈비

육장갈비

수제갈비 전문점

신개념 서서갈비 전문점

(남들이 안하는 차별화된 메뉴로 성공)

육장갈비 성공스토리 / 운서역점

“육장갈비로 고깃집창업을 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숯불구이 서서갈비 전문점 ‘육장갈비 운서역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99-2번지 신성하우스빌 1층 / 032-746-5004)’도 본사의 지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더해져 성공한 케이스다.

전임주부였던 박민희 장주는 15년 경력의 주방장이신 아버지의 성공적인 독립을 위해, 또 고기를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업을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육장갈비’를 알게 됐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꼼꼼히 비교 분석을 했는데, ‘육장갈비’가 훨씬 매리트가 많아 장업을 결심하게 됐다.

“첫 창업인 만큼 걱정이 많았습니다.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죠. 7월 2일 초그랜드오픈하고 저당까지 잘 운영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본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이제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고객들도 고기 맛에 만족해하며 재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장갈비’의 대표메뉴이자 특화된 메뉴인 육장갈비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을 했다. 육장갈비에 대해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 유레나 개판과정 등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시식을 통해 고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매뉴인 만큼, 육장갈비’라는 메뉴가 성공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박민희 장주의 설명이다.

박민희 장주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는 본사의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본인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육장갈비 운서역’이 지역을 대표하는 고기가 맛있는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갈비 + 수제돼지갈비 + 착한메뉴 = **대박집!**

창업문의 : 1588-9280

창업자금대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단,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